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는
2024 KEPCO의 자기소개서



나는 [**오리발**] 이다

주변에서 저는 차분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모습이 마치 오리발 같아요.
물속에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오리발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티 나지 않아도 늘 바빠 움직이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모습이 저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입사지원서에 '조직에 보탬이 되는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적은 기억이 납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되 너무 무겁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지키는 길인 것 같아요.
- 김다운 경기본부 고객지원부 차장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i am

20
24
03
march
vol.609



유연하게
flexible
책임 다한다

우리는 꺼지지 않는 빛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앞을 향해 정신없이 내달리다 보면
도달하고자 했던 목표도, 달리고자 했던
이유도 쉽게 잊혀지곤 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새겼던 사명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원동력이 되고
우리를 넘어 모두의 빛을 밝히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here i am, i am KEPCO

i am

KEPCO



통권 609호 2024년 3월호(월간)

등록번호 나주 마00003

발행일 2024년 3월 10일

발행인 김동철

편집인 백수현

편집 한국전력공사 홍보처 (061)345-3121, 5

주소 (우)582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기획·디자인 큐라인

인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창간일 1961년 8월 31일

4 ESSENTIAL KEPCO

사명, 꺼지지 않는 빛

10 TIMELINE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갑시다”

12 LIGHT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

14 FOCUS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장관상 수상

16 ZOOM IN

‘안전 최고’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전기

20 KEEPER

‘소통’과 ‘재미’로
집중하는 교육 만들다
강원본부 천무상 차장

22 SITE

인공지능 기술과 전력 인프라로
대형 산불 잡는다
산불조기대응시스템

26 GREENSIGHT

경기북부분부 직원과 함께하는
‘비건 요리 클래스’

30 VIEW

열정과 낭만이 흐르는 거대한 땅,
멕시코

36 WIDE

위기의 뉴욕타임스가
디지털 미디어 기업으로
환골탈태한 비결

38 TALK

KEPCO 일잘러를 위한 웹툰
<취준생물>
신입 사원 시절 가졌던 목표와
다짐 돌아보기

42 K-CREATOR

화이트 해커의 세계

44 MAGAZINE P

치열한 독립의 역사를 잇는
천안지사의 일상

46 #STARGRAM

48 NEWS

50 ON KEPCO

51 WE ARE KEPCO
당신의 봄은 어디쯤 와있나요



한전의 사명은 '꺼지지 않는 빛'을 위한 투쟁이자 헌신이었다.
국민에게 빛으로 주는 자유로움을, 국가의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 되어 온 한전의 사명에 대해 알아보자.



사명

使命

꺼지지 않는

빛



사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맡겨진 임무나 명령이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이는 단순히 맡겨진 임무가 아니라 존재 이유를 묻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전력 수급 안정으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사명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한전의 빛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를 밝히고 있다.

전기(電氣)로 우리의 삶을 지켜 온 한전. 그들은 '전력 수급 안정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 아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우리나라의 빛을 밝히고 있다.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국민의 생활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며,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기술 등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전법 제1조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전은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력자원의 개발뿐만 아니라 신뢰도 높은 송배전 계통 구축과 기술 개발로 고품질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노후 설비 보강, 고장·정전 예방진단 시스템 구축, 고효율 기자재 개발 보급으로 최고 품질의 전기를 제공하며, 합리적 요금체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발전소 건설, 전력 인프라 개발,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외 전력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Part 1.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

한전은 송변전, 배전, 전력판매, 수요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빛을 밝혀오고 있다.
또한 요르단, UAE를 포함한 전 세계 19개국에 38개 사업을 진행하며 한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전의 사명이 밝힌 빛을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알아보자.

도전과 혁신으로 밝히는 빛

● 한국전력의 오늘

한국전력공사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에너지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총 자산 234.8조 원, 매출액 71.3조 원, 전력판매량 548TWh을 기록하며, 좋은 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에너지전환과 디지털변환을 주도해 가고 있다.



● 전력산업과 함께 국가 경제도 성장

1887년 3월 경북공 건청궁에서 7kW 증기발전기 3대로 시작한 발전 설비는 수력, 화력, 원자력 등 대규모 발전 설비와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708대의 발전기에 65,514MW의 설비 용량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했다.



● 전력난 극복을 위한 전원개발 계획

한전 창립 당시 우리나라의 발전설비는 전력수요에 비하여 발전 가능 전력이 3/4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었다. 한전은 1961년에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발맞추어 제1차 전원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 및 추진해왔다. 제1차 전원개발 5개년계획 이후 제2차(1967~1971), 제3차(1972~1976), 제4차(1977~1981) 전원 개발 5개년계획이 순차적으로 시행됐다.



● 전국을 잇는 대(大)전력 수송체계 구축

송전선로는 1923년 완성된 종대리(강원도)-서울 간 66kV 166.9km를 시작으로 2006년 말 준공한 울진-신태백 간 93km의 345kV(46km-765kV) 송전선로에 이르기까지 29,526km 길이로 수도권과 전국을 환상망으로 연결, 대전력 수송체계를 구축해 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이바지하고 있다.



● 32년만의 결실 220V 승압

전국을 연결한 전선 길이는 지구에서 달까지 왕복하고도 지구를 7.9바퀴나 돌 수 있을 정도가 됐다. 1973년부터 2005년 말까지 시행됐던 220V 승압 사업은 전력공급 능력 증대 및 전력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정용 전력의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높이는 사업으로 승압을 통해 설비 증설 없이도 2배 정도의 전기사용이 가능해졌다. 전기사용 시 손실도 75% 감소시켜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손실률을 유지, 연간 40억kWh의 전력손실과 약 1,7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 세계 최고 수준의 KEPCO 전기 품질

전기품질은 일반적으로 호당 정전 시간, 규정전압 유지율, 주파수 유지율 등으로 평가하는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가구당 정전 시간은 2022년 9.05분을 기록했다. 또한 송배전 손실률은 3.53%를 기록해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등과 비교해도 월등히 우월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신뢰도 높은 송배전 계통 구축

한전은 배전사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공장 약 54만c-km, 지지물 10,144천기, 변압기 251만 대의 방대한 배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중배전 설비의 건설은 신도시 등 대규모 단지개발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처음부터 지중으로 건설하는 지중 신규사업과 기존의 가공배전선로를 지중으로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 두 가지 형태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KEPCO

한전은 1995년 필리핀 말라야 화력발전사업을 시작으로 해외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아시아, 중동, 중남미,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을 포함한 전 세계 24개국 46개 프로젝트를 통해 화력, 원자력, 재생에너지, 송배전, 신사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Part 2.

신입 사원이 이야기하는

“더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국민들이 전력을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한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광주전남본부 전력사업처 사원

한전의 사명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즉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국민들이 전력을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한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전의 사명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한전인으로서 갖는 사명감의 키워드는 '신뢰'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주체는 국민이고, 한전과 국민 사이의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전력 사용의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첫 걸음은 직원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형성한 신뢰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외부로 내보낸다면 대외적인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뢰'라는 사명감 아래, 함께 일하는 직원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Part 3.

사명

권태훈
충북본부 제천지사 사원

우리 회사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안정적인 품질의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수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회사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업무가 곧 한전의 사명을 이루는 기본이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 판매로 발생한 수익이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어야 하며, 이런 채권 회수의 가장 말단에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바로 수급부서입니다.

손끝, 발끝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일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몸 전체가 건강해지듯 제가 근무하는 사업소의 노력이 회사가 발전하는 원동력이라고 믿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전사적인 시야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손끝, 발끝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일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몸 전체가 건강해지듯 제가 근무하는 사업소의 노력이 회사가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믿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사명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통해 이어져 왔다. 한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입 사원들이 생각하는 '한전의 사명'은 무엇인지, '한전인으로서의 사명'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최우영
광주전남본부 완도지사 사원

한전은 고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전원개발 및 ICT 기술을 활용한 전력공급 등 다양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전력산업을 이끄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한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의 업무가 한전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전기를 사용하는 누구나 한전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앞으로 한전이 만들어 갈 전력산업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관련 규정 및 지침, 약관을 자주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전이 추구하는 목표의 바탕이 되고, 한전인으로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사명감은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우자'입니다. 제가 맡은 일이 신규 업무이다 보니 제가 접수함으로써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예은
경남본부 통영지사 사원

한전은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전기를 국내에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배전 사업,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해외 수출 사업,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전을 위해 제가 갖고 있는 사명감은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우자'입니다. 제가 맡은 일이 신규 업무이다 보니 제가 접수함으로써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에서는 전기 공급이 시작되고 요금을 청구하며 고객님은 전기를 사용해 더 큰 재화를 생산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궁극적으로는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규 접수를 할 때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전기를 사용하는 누구나 한전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앞으로 한전이 만들어 갈 전력산업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갑시다”

미래 준비를 위해 기업체질 개선에 앞장서 줄 것 당부 2024년 본사 전입 차장 대상 오리엔테이션 참여

김동철 사장은 2월 6일 본사 신규 전입 차장 127명을 대상으로 본사 비전홀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 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회사와 나의 새로운 시작, 슬기로운 본사생활’이란 주제 아래 본사 초급 간부로서의 성공적 시작을 위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인식, 자긍심 고취, 직무역량 향상 및 동기부여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환영 및 격려사, 회사 현안 소개, 본사 3직급 우대계획 및 나주 적응 팀 소개와 함께 경영진 특강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김동철 사장은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라는 경영방침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회사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업체질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전은 앞으로도 본사 신규 전입 차장들의 적응 지원을 향한 멘토링 활동 지원은 물론, 기획력 강화-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동철 사장은 2월 27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청년 학업지원과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전기공학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전기공학 장학생’은 전국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장애인, 학생가장, 다자녀 등의 가정형편과 학업성적, 수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성적 우수자뿐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도 장학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도에는 전국 76개 대학교의 전기공학 전공 학생 98명을 지원했다.

김동철 사장은 장학생들에게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력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산업에 있어 전기공학은 매우 중요한 학문이며, 미래 전력산업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전기공학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창의적 마인드와 책임감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본사 전입 차장 오리엔테이션 교육과 전기공학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첨단산업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회의 등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가는 CEO를 만난다.

전력망 적기 건설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첨단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협력 TF 발족 회의 개최

김동철 사장은 2월 27일 3시 한전 아트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을 비롯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사장 등 12개 기관이 참석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협력 TF 킷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산업부·국토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용인시,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LH, 주식회사 용인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특화단지 중 가장 많은 전력이 필요한 용인 특화단지에 대한 전력공급 설비의 효율적 건설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사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철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력망 적기 건설 여부가 국가 첨단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라며 “용인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의 성공 또한 수도권 대규모 전력공급 대책 마련이 핵심임을 잘 알고 있고 한전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막중한 책임

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철 사장은 2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전력기자재 중소기업 조합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금리·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한전의 육성지원 사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든든한 성장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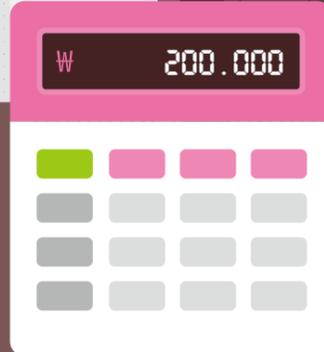
김동철 사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3%대의 전력 손실률과 8분대의 호당 정전 시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덕분에 가능한 것”이며, “어려운 경영 여건이지만,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에너지 신산업과 신기술의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도 한전과 적극 협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사업자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월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 사업자



지원 절차

소진공에 신청
한전 요금 지원



지원 실적

총 95만 호
2,109억 원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약 126만 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면서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이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고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이나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면 된다. 다만, 올해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한다. 지원 대상의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오피스텔 등) 5가지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한전과 전기 사용을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직접 계약자)은 신청 이후 사용한 전기의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신청 이후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에 각각 0원으로 차감받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3주 정도면 차감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한전과 전기 사용을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는 지난해부터 신청 이전까지의 전기요금에 대해 환급 방식으로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는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조건이 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접수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한 후 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자를 한전으로 통보해 준다. 한전은 지원 대상자에게 감면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행,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 올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증 후 한전 본사에서 100% 접수 후 지원한다. 따로 한전 지역 사업소나 사업소의 온라인에서는 접수받지 않는다.

한전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 조치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행정명령 이행으로 영입이 제한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이었다. 이 기간에는 총 95만 호에 2,109억 원을 지원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나라에서 지내고 있는 외국인 4명이 생생하게 풀어낸 한국의 전기와 그들 나라의 전기 이야기를 들어본다. 한전의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된 '한국의 전기 어떻게 생각해?'를 정리해 담았다.

'완전 최고'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전기

Shall We Talk?



출연자



- 라라 | 스페인  밋치 | 스코틀랜드 
- 코노미 | 일본  빅토리아 | 말레이시아 

Q 대한민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 와서 처음 알게 된 단어가 있다. 바로 '냉방병'. 더운 나라도 이렇게 에어컨을 세게 틀지는 않는다. 전기요금이 싸서 에어컨을 뽕뽕하게 트는 것 같다. 스페인의 전기요금은 월 60유로 정도로, 한 8~9만 원 정도 된다. 우리 부모님은 겨울 동안 한 달에 140유로 정도를 낸다. 스페인은 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고 가스 공급이 어려워져서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다. 스페인은 전기요금이 비싸 전기 절약이 습관이 되어 있다. 집을 비우면 무조건 불을 끄고, 뜨거운 물도 진짜 필요할 때만 쓴다. 욕조까지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는 나도 집에 있을 때 내내 TV를 켜 놓는다. 보든 안 보든, 심지어 강아지와 산책하러 갈 때도 켜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라라

저렴한 전기요금, 뽕뽕한 에어컨, '냉방병' 단어 처음 알게 됐어.



밋치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전기를 낭비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

한국에 와서 편의점이나 가게들이 간판을 24시간 켜 놓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다. 스코틀랜드는 그런 곳이 없다. 스코틀랜드의 평균 전기요금은 12만 원 정도이고, 가장 많이 낸 요금은 20만 원 정도다. 유럽은 요즘 전쟁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다. 스코틀랜드는 북쪽에 위치해 추운 날씨로 난방 기구를 많이 사용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편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외출할 때 전기 스위치 다 끄고 다녔는데, 한국에서는 TV부터 공기청정기, 노트북 등등 온갖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한다. 한국 전기요금이 새삼 저렴하다는 생각이 든다. 저렴한 전기요금이 전기를 낭비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한국의 2배.



코노미

일본은 여름에 전기가 부족해서 정부에서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달라, 온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한다. 한국은 전기를 원하는 만큼 사용한다는 게 신기하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한국의 2배 정도이다. 자취하는 경우는 약 6만 5천 원 정도이고, 4인 가족은 평균 14만 원 정도이다. 일본에는 '연료조절비'라는 항목이 전기요금에 포함된 곳이 많다. '연료조절비'는 전기를 만드는 연료 가격에 따라 변한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연료조절비가 올라서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건데, 화석연료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전기요금도 올랐다고 한다. 한국의 겨울은 일본보다 훨씬 추워서 난방 제품이 필수인데 다들 알다시피 보일러는 너무 비싸서 덜 비싼 전기장판 덕을 보고 있다. 확실히 여름에는 에어컨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하다. 전기요금이 저렴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매장 출입문을 활짝 열고 에어컨 트는 것 놀라워.



빅토리아

말레이시아도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컨을 많이 틀긴 한다. 한국에서 에어컨 틀고 매장 출입문 활짝 열어 놓는 거 보고 놀랐다. 집들이 커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층집을 기준으로 한 20~30만 원 정도 나온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다. 환율 생각하면 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프리랜서라 전기요금을 많이 아끼는 편이다. 엄청 덥거나 추울 때만 사용한다.





라라

24시간 운영하는
한전의 고객센터,
전화하니 바로 와서
해결해줘.

Q 한국의 전력 서비스는 어떤가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핸드폰에 있는 번역기에 의지해서 다니셨는데 카페에 가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서 무사히 다니실 수 있었다. 나는 한국에서도 스페인에서도 정전을 경험한 적은 없는데 스페인은 보통 정전되면 복구까지 1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다.

며칠 전 눈이 많이 왔을 때 전선이 끊어져서 한전에 전화했더니, 그날 바로 와서 해결해 주고 처리 완료됐다고 알려주었다. 한국은 고객센터도 24시간 운영한다. 스페인도 24시간 고객센터 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너무 느리고 답답하다.

한국은 전기회사가 딱 한 곳이라는 것도 좀 특이하다. 스페인에서는 1997년부터 누구나 전기공급을 할 수 있어서 민간 회사들이 많다. 집집마다 전기 서비스하는 곳이 모두 다를 때 정전이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는 하다. 그리고 전선이 많아서 보기에 안 좋다. 스페인은 대부분 전선이 땅속을 지나간다. 한국도 지중화된 곳이 많지만, 간혹 전주의 전선이 조금 위험해 보이는 곳들이 있어서 전선이 땅 밑으로 지나가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한국의 전기요금도 싸고, 품질은 최고다. 한국은 핸드폰을 사용하다 충전이 필요하면 카페나 식당에서 충전해 달라고 하면 된다. 직접 전원 꽂고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도 자리마다 있는 곳이 많아서 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

시골이나 섬도 불이 다 잘 들어오고 정전도 거의 없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정전을 몇 번 경험한 적 있는데 한국에서는 한 번도 없다. 스코틀랜드는 날씨가 정말 추울 때 정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10살 때쯤 거의 이틀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와서 양초만 사용했다. 평균적으로 복구에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다. 스코틀랜드에 살 때는 그게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국에 살아 보니 지금은 스코틀랜드에 가면 너무 길 것 같다. 휴전 작업으로 인한 정전은 사람들 안전을 보장해 주는 조치니까 불편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영국도 비상시를 위해 고객센터가 있긴 한데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 스코틀랜드는 여러 전기회사가 있다. 그런데 전기회사가 한 곳인 한국이 시스템도 편리하고 오히려 쓰기 편하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전력 서비스가 스코틀랜드보다 훨씬 낫다. 정전도 없고 서비스도 빠르다.



코노미

한국의 정전 복구
진짜 빨라서
놀라워.

나도 오피스텔 전체가 정전된 적이 있었는데, 복구가 진짜 빨라서 놀랐다. 일본은 정전되면 접수하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대처가 빠르다.

일본은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 재난으로 정전이 워낙 잦다. 2016년 쿠마모토 지진이라고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집에 정전이 발생했다. 일본은 전력 복구를 보통 시내부터 시작한다. 시골인 우리 집은 거의 일주일 정도 정전 상태였던 적도 있다. 다행히 재난 정전을 대비해 발전기를 집에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샤워도 하고 충전도 할 수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일본의 규슈 전력이란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 휴전 작업은 최대한 전력을 안 쓰는 시간이나 집이 비었을 때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해 준다고 하신다.

일본에 거의 없는 24시간 고객센터는 정말 좋은 거 같다. 일본도 전기회사가 여러 곳이 있다. 회사마다 다양한 요금제나 절약법이 있어서 자기한테 맞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시간을 내서 여러 회사를 알아보는 것도 쉽지는 않다.

일본은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전기요금이라 와이파이, 통신요금을 합쳐서 청구할 수 있는 민간 서비스가 있긴 하다. 그러면 각각 계약했을 때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의 울전화(울전력화)가 한국에 도입되면 좋을 것 같다. 일본은 자연 재난이 많아 이용자가 많지 않지만 한국은 지진도 태풍도 많지 않아서 밤에 모은 전기로 방을 따뜻하게 하면 가스비랑 전기요금 둘 다 줄일 수 있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에서 전기 쓰면서 불편한 일이 거의 없었다. 정전의 경우 한국에서는 딱 한 번 있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렸을 때 조금 더 있었다. 한국에서 정전되었을 때는 금방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말레이시아는 정전되면 한 반나절 정도 후에 전기가 들어온다.

휴전 작업으로 정전되는 경우는 사람들에게 미리 공지했던 것 같다. 급할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긴급팀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혼자 대처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내용은 유튜브 '셀위토크' 검색!



한국에서
전기 사용하면서
불편할 일
거의 없어.



빅토리아

‘소통’과 ‘재미’로 집중하는 교육 만들다

공공 HRD 최우수 강사로 선정된 강원본부 전력사업처 천무상 차장 (전 인재개발원 교수)

● 최근까지 인재개발원 교수로 활동했던 천무상 강원본부 전력사업처 차장이 지난 12월 제41회 공공 HRD(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강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인재개발원에서 만 4년 동안 교수요원으로 활동하며 한전에 갓 입사한 신입 사원들을 전력사업의 든든한 기둥으로 만들어 온 그를 만나본다.

Fun &

한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한몫

“공공 HRD 대회는 공기업보다 경찰이나 소방관 등 공공기관에서 많이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수준도 높아 우리가 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수상 발표를 확인하곤 정말 기뻐했습니다.”

천무상 강원본부 전력사업처 차장은 수상도 수상이지만 무엇보다 이번 일로 한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한몫을 담당했다는 사실이 더없이 뿌듯하다고 말한다.

이 대회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교육훈련 분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부문 교육훈련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최우수 강사 부문은 교육 내용과 교수 학습 기술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데, 천 차장은 신입 사원 대상의 ‘전력 공급의 뼈대, 장주란 무엇이고?’라는 배전 분야 직무강의로 참여했다. 패들렛(Padlet), 슬라이드(Slido)라는 학습자 특성 파악과 소통에 중점을 둔 온라인 강의 툴을 활용해 집중력과 만족도를 높인 점이 특히 좋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생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교육의 기본 ‘소통’

그의 강의 내용에 중심이 되었던 ‘장주(裝柱)’는 전력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전주 위에 설치하는 기자재로,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은 한자어이다. 그는 ‘소통’만이 교육생들이 배우는 내용을 친근하게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딱딱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게 받아들일까’를 고민하며 해법을 찾아갔다. 교육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인공이 되어 함께하는 교육이 해법이 되었고, 그가 만들어가는 교육의 기본으로 자리잡았다. 어렵게 느껴지는 ‘장주’도 그의 교육 주제로 넘어와 ‘말랑말랑’해지고 어느덧 친근해 진 것도 소통의 힘이다. 이를 위해 시청각 자료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익명 소통 교육 툴인 패들렛과 슬라이드 등으로 퀴즈, Q&A를 만들어 교육생들이 지루하다고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다. 또한 교육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실물도 미리 준비해 만져보고, 둘러보게 하는 등 쌍방향 수업이 되도록 수업을 구성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채워지는 교육의 ‘재미’

소통에 기반을 둔 교육은 교육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친밀감도 두텁게 해 자칫 딱딱하거나 지루하기 쉬운 시간을 ‘즐거운 교육’으로 만들어갔다. 특히 그는 교육받는 직원들의 동기유발을 위해 ‘모티브’를 갖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의무 교육 같은 경우는 스스로 원해서가 아닌 경우가 많아 교육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는 수강생들이 종종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은 포상이나 다양한 평가로 강의장의 모든 인원이 집중하는 교육, 웃음꽃 피는 교육으로 만들려고 많은 아이디어를 투입했다.

천 차장은 자신이 신입 시절 만났던 담임 교수의 추천으로 인재개발원 교수라는 직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다. 만 4년을 교수요원으로 ‘가르치고 소통하는 일에 푹 빠져 지냈던’ 그는 다시 사업소로 돌아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현업과 교육이 바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소통하며 현장에서 뛰고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게 좋다는 천 차장. 강원본부 전력사업처에서 또 다른 경험을 쌓고 있는 그의 성취가 교육생들이 찾는 최고의 교육으로 다시 탄생하기를 기다려본다.

교육 내용과 교수 학습 기술 등의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천무상 차장



NEW
GW

인공지능 기술과 전력 인프라로 대형 산불 잡는다

최근 산불의 위력이 심상치 않다. 해외에서는 지상낙원으로 불리는 하와이를 초토화시키는가 하면 국내에서는 2019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나 2022년 울진 삼척 산불, 2023년 강릉 산불 등 역대급 대형 산불이 빈번한 실정이다. 한번 발생하면 무서운 속도로 온 산을 태우며, 막대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산불은 조기에 발견해 진압하는 것이 관건이다. 건조한 날씨 탓에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3월을 맞아 한전이 개발한 산불조기대응시스템이 설치됐다는 한전 경북본부 현장을 찾았다.

굽이치는 좁은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오르니 거대한 송전철탑이 모습을 드러낸다. 산 능선을 따라 도열한 철탑 사이로 전력선이 부드러운 곡선을 지으며 이어진다. 철탑 중간쯤 소형 태양광 패널들이 먼저 눈에 띄고, 철탑 뒤쪽 한켠에 고성능 감시 카메라가 달려있는 것이 보인다. 철탑 하단에는 산불분석장치가 자리했다.

산불조기대응시스템이 설치된 송전선로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안동변전소 이곳에서는 감시 카메라로 수집된 산불 관련 정보들을 클라우드로 받아서 AI 기반 기술을 활용해 분석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제어실 전면의 화면에는 산불 발생 지점의 기후, 지리정보 등 빅데이터가 표시되며 고성능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을 확대해 볼 수 있다.

한국전력이 보유한 전력설비와 첨단기술 인프라로 산불조기대응시스템을 개발해서 화제다. 지난 연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한국전력에 안겨준 ICT기획처 인프라계획실을 만나보고, 경북본부의 산불조기대응시스템 설치 현장을 찾았다.

Perspective

산불조기대응시스템이 설치된 송전철탑 앞에 선 한전 담당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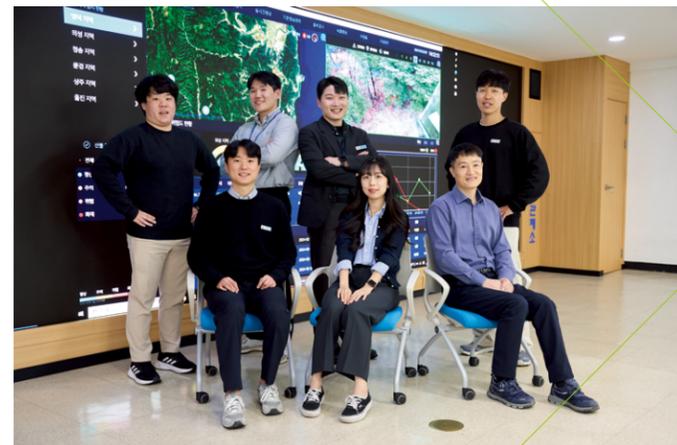
AI 기반 분석기술로 정확도 높다

산불조기대응시스템은 한전이 보유한 송전철탄과 기지국 등에 산불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산불을 감시하고, 취득된 영상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산불 발생 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예측하는 조기탐지기술이다. 사실, 기존에도 산림청이 CCTV를 설치해 산불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산악 지역에 CCTV를 설치하려면 구조물, 전원, 네트워크 등을 새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또 안개와 조명 등의 요인을 산불로 인식하는 식별 오류가 빈번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한전이 전력 인프라를 활용한 산불조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지지대나 구조물 설치가 어려운 산악 지대에 자리한 한전의 무선기지국과 송전철탄에 실화상과 열화상 인식이 가능한 고성능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송전철탄에는 산불을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AI 기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에지(edge)형 산불분석장치도 설치했다. 무선기지국과 송전철탄의 카메라에서 수집된 산불 관련 빅데이터는 분석장치나 클라우드에 보내지며, 양상블 기법 등 첨단 AI 기법으로 분석의 정확도를 높인다. 분석 결과 산불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산림청, 소방청 등과 공유해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아무래도 정부 협업 사업인 만큼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설치하기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공감대 형성과 의사결정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한전 본사와 사업소 담당자들은 화상 또는 방문 미팅을 수없이 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또 관련 기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공식적 협력관계를 이끌어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펼친 결과 산림청, 소방청, 경북도청 등 정부 기

관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민간 수행업체의 기술과 인프라가 결합된 팀 코리아 실무 모델을 실현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산불조기대응시스템으로 2023년 11월 8일 인사혁신헌처 주관으로 개최된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내기도 했다.

산불 잡아 국민안전 지키고, 수출길까지 뚫는다

이 같은 산불조기대응시스템은 한전의 인프라와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산불관제CCTV를 구축할 경우와 비교하면 50% 이상의 투자비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며, AI 기반 지능형 산불감시를 통해 약 99%의 탐지 정확도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전은 산불조기대응시스템을 충북, 광주·전남, 경북 지역의 철탄과 기지국 등 25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앞으로 한전은 산림청, 지자체의 협업을 이끌어내어, 한전이 보유한 약 2만여 개의 산악지형에 자리한 철탄과 기지국을 활용해 전국적인 산불감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스템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제품화해 개발도상국과 같은 산불 취약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과 컨설팅으로 지능형 감시, 데이터 분석 분야의 수출 활로를 개척할 예정이다. 특히, ICT기획처 인프라계획실에서는 2024년 4월에 열리는 UN ESCAP 제80차 총회에 참석하고 우수 사례를 발표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스템 홍보에 박차를 가해 제품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한전은 새로운 시각으로 전력산업의 경계를 넘어 국가 재난 안전에 기여해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산불조기대응시스템을 개발한 ICT기획처 인프라계획실과 시스템이 설치된 선로를 관리하는 경북본부 전자제어부원들이 함께 했다.



안동변전소 ICT관제소에서 송전선로에서 보내온 산불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경북본부 사무원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높아진 관심만큼 식품업계는 다양한 비건 상품을 내놓고 있다.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채식 생활'이 가능해진 것이다. 채식과 가까워졌다면 직접 채식 요리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경기북부분부 직원과 함께하는 '비건 요리 클래스'



식탁의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기쁨

육식 대신 채식을 하는 것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육식으로 소비되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 이른바 '붉은 고기'를 생산하는 데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축산업으로 인해 배출되는 양은 약 15%. 이는 전체 탄소 배출량 중 발전 부문 다음으로 큰 배출량이다. 그중에서도 약 65%는 전 세계 15억 마리의 소를 키우는 데서 나온다. 닭이나 돼지보다 덩치가 큰 소는 키우는 데 더 많은 땅과 물, 사료가 필요하다. 여기에 소가 사료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방귀와 트림 등으로 배출하는 메탄가스(CH₄)는 온실가스의 주성분이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 데 온실가스 59.6kg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의 '음식물 에너지 소모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연구'에 따르면 1인 한 끼 채식 전환 시 약 3.25kg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한다. 매 끼니 채식을 하지 않고 유연하게 채식을 해도 충분히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함께할수록 즐거워지는 채식 캠페인

기후 위기를 위해 채식을 마음 먹었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같은 가치를 공유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캠페인에 동참해보자. 캠페인을 통해 같은 가치는 물론 각자의 노하우를 나누다 보면 어렵게 느껴졌던 채식도 훨씬 쉽고 즐겁게 느껴진다. '채소 한 끼, 최소 한 끼'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진행하는 채식 캠페인이다. 그린피스 코리아는 '채소 한 끼, 최소 한 끼' 캠페인 동참을 약속한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다양한 채식 요리법이 담긴 레시피북을 보내준다. 온라인 레시피북을 받은 사람들은 레시피대로 요리한 후 개인 SNS



고기 대신 콩과 버섯을 사용한 캐비지를.



각자의 요리에 집중하고 있는 경기북부분부 직원들.

에 #채소한끼최소한끼 #채세권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비틀즈의 멤버, 폴 매카트니가 공장식 축산업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채식을 하자고 제안한 캠페인 '고기 없는 월요일(Meat Free Monday)'가 있다. 이들은 "일주일 중 하루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활동 중이며, 전 세계 40여 개국이 동참하는 캠페인으로 확산되었다.

직접 만들어보는 채식 요리

경기북부분부 직원들이 나만의 채식 요리 도전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고객지원부 심소희 대리, 고객지원부 김수영 대리, 고객지원부 김우진 대리, 요금관리부 석지수 대리, 요금관리부 최원호 대리가 그 주인공이다. 로비건강식 요리학원에서 진행한 비건 요리 클래스의 메뉴는 캐비지와 페스토 파스타였다. 강의는 채식과 환경 보호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강사님의 요리 시연으로 이어졌다.

"캐비지를 안에는 고기 다진 것을 넣어 완성하는데요. 저희는 오늘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콩과 버섯을 활용해 채식 캐



요리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비지물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레시피가 쉬워서 아마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강사님의 시연이 끝나고 각자의 자리에 서서 요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양배추와 당근을 다져 소를 만들고 데친 양배추로 소를 채워 캐비지롤을 완성했다. 접시에 캐비지롤을 옮겨 담은 직원들의 얼굴에 뿌듯함이 묻어났다. 각자 만든 캐비지롤을 맛보고 페스토 파스타 시연을 이어갔다.

“케일은 조금 쓴 맛이 있는데 파스타에 잘 어울릴까요?”

페스토 파스타에 쓰이는 초록 채소는 고수, 미나리, 깻잎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케일을 활용해 페스토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페스토 파스타는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쉬운 요리지만, 처음 해보는 채식 요리에 질문이 이어졌다.

비건 요리 클래스의 장점은 하나의 요리를 배우며 다른 비건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재료와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뉴트리셔널리스트’ 같은 비건 식재료처럼 말이다. 양식에 많이 사용하는 치즈는 유제품이라 비건 요리에 사용할 수 없는데, 치즈 맛을 즐길 수 있는 뉴트리셔널리스트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이 다양해 상비하면 좋은 아이템이다.

“채식 요리는 어려울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요리 방법이 쉽고 맛도 있어서 다른 채식 요리도 도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완성된 페스토 파스타와 캐비지롤이 먹음직스럽다.

간단하고 맛있게 즐기는 비건 요리 페스토 파스타

재료

페스토 초록 채소 50g, 구운 호두 20g, 다진 마늘 1ts, 뉴트리셔널리스트 1/2ts, 올리브 오일 1/2C, 소금 1ts

페스토 파스타 파스타 건면 70g, 페스토 2T, 면수 2T

만드는 방법



1. 올리브 오일을 뺀 페스토 재료를 푸드프로세서에 넣고 다져 줍니다. 재료들이 잘게 다져지면 올리브 오일을 넣고 마저 돌려 줍니다.



2. 냄비에 물을 넣고, 물이 끓어오르면 소금을 넣고 파스타 면을 8분 동안 삶아 줍니다.



3. 삶은 면은 체에 받쳐 올리브 오일을 1큰술 넣고 잘 비벼 둡니다. 면이 퍼지지 않고 쫄쫄한 식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4. 페스토를 프라이팬에 넣어 볶아준 뒤, 삶은 파스타면과 면수를 넣고 함께 볶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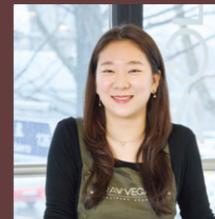
5. 파스타에 전체적으로 페스토의 간이 베이면 불을 끄고 파스타를 그릇에 담아 완성합니다.

mini interview



심소희 대리
● 고객지원부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직접 해 먹고 싶다는 생각은 자주 했었지만, 막상 어떤 재료로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도전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에게 딱 맞는 요리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채식을 통해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친환경 활동에도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김수영 대리
● 고객지원부

비건 요리 클래스를 통해 비건 요리를 직접 배워 보니 생각보다 만들기도 간편하고 건강에 좋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요리 꿀팁도 알게 되어 집에서 요리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배달 음식을 먹는 것보다 돈도 아끼고 일회용품도 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친환경 생활 습관에 한발 더 다가선 것 같습니다.



김우진 대리
● 고객지원부

콩이나 두부, 견과류로 잘 요리하면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더 풍부한 맛을 내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치즈 대신 이스트를 넣은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요즘처럼 음식 재료나 한 끼 식사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비건으로서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민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인상적이었습니다.



석지수 대리
● 요금관리부

생각보다 내가 쓰고 먹는 것에 ‘비건’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친구와 함께 비건 요리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소 한 마리의 일일 메탄 배출량은 자동차 한 대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비건 요리를 먹는 것만으로도 지구온난화 해결에 도움을 준다니, 앞으로 비건 요리를 자주 해서 먹어야겠어요.



최원호 대리
● 요금관리부

평소 요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기존에 알던 요리 방법과 비건 요리 방법이 어떻게 다를지 궁금했는데 요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 과정은 비슷하더라고요. 하지만 회사 동료들과 일이 아닌 다른 경험을 함께한다는 점이 새롭게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동료들과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지구상에서 일조량이 가장 풍부한 지역인 솔라 벨트에 자리한 멕시코.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부터 소노라주를 비롯한 세 지역에 29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3년 멕시코 소노라주는 연내 100MW 규모의 타스티오타(Tastiota) 태양광 발전소와 99MW 규모의 엘 마요(El Mayo) 태양광 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멕시코 태양광 발전소는 한전이 중남미에서 추진하는 첫 태양광 사업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다. 태양만큼 뜨거운 열정을 지닌 나라, 멕시코로 떠나보자.

열정과
낭만이 흐르는
거대한 땅,
멕시코

Mexico

멕시코시티의 중심부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파세오 데 라 레포마와 독립의 천사 로터리

입과 눈이 즐거운 멕시코의 심장, 멕시코시티

멕시코시티의 별명은 미식의 수도다. 멕시코 음식은 아스테카 문명이라는 고대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1325년 아스테카인들이 현재 멕시코시티가 자리한 텍스코코 호수에 정착하며 옥수수 가루를 반죽해 만든 토르티야 문화를 꽃피웠다. 이후 농가에서는 새참으로 토르티야에 여러 재료들을 싸서 타코를 만들어 먹곤 했는데, 각지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며 멕시코시티는 타코 경연장이 되었다. 지금도 멕시코시티의 중심, 소칼로 광장에는 고수를 올리고 라임과 살사 소스를 듬뿍 뿌려 먹기 좋은 타코 가판대, 타케리아가 즐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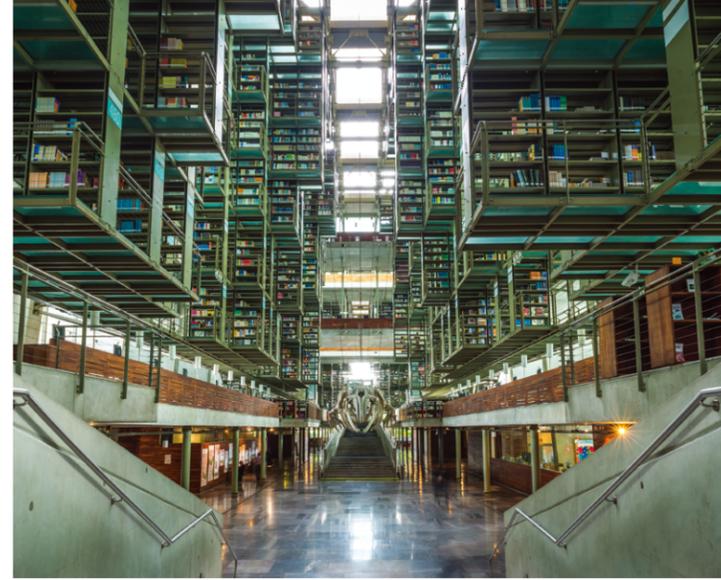
거리마다 붉은 빛이 피어오르는 멕시코의 일몰



↖ 멕시코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개관한 멕시코 예술 궁전.

선인장이 자라는 메마른 사막과 열대 우림, 거대한 피라미드와 유럽풍 궁전, 에메랄드빛 바다와 눈부신 해변, 광활한 대지만큼 다양한 기후와 풍광이 존재하는 멕시코. 인디오와 스페인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멕시코는 나라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야, 아즈텍, 테오티우아칸, 톨텍 문명이 쌓아 온 시간은 멕시코 곳곳에 남아 오늘날까지 빛나고 있다. 또한 카리브해와 유카탄의 아름다운 해변까지 더해져 멕시코의 멋과 맛을 알게 된 순간, 그 누구도 쉽게 이 나라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멕시코시티 구경도 식후경. 양고기 타코와 곱창 타코로 배를 든든하게 채운 후 소칼로 광장 옆 국립궁전을 둘러본다. 황금빛 유리 돔, 아르누보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은 흰 대리석 외관이 눈이 부신 국립궁전을 마주하자 카메라 셔터가 절로 눌러진다. 국립궁전은 외관뿐만 아니라 멕시코 벽화 운동을 주도했던 거장 디에고 리베라, 호세 클레멘트 오로스코, 다비드 알파로 시케이로스의 벽화로도 유명하다. 그중 백미는 강렬한 색감을 뽐내내는 디에고의 '우주를 지배하는 인간'이다. 한편, 벽화의 대가 디에고 리베라와 그의 아내 프리다 칼로가 살던 푸른색 집 카사 아줄은 프리다 칼로의 작업실과 침실을 간직한 박물관이 되어 남아있다. 1907년에 문을 연 바로크 양식의 멕시코시티 중앙 우체국의 고아한 자태에 감탄하며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 '알라메다 센트럴'로 발걸음을 옮겨 본다. 녹음이 우거진 공원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 벤치에서 책 읽는 사람 등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는 현지인들 표정에서 여유가 묻어난다. 공원에서 휴식 후 멕시코시티가 번잡하고 위험한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건설했다는 호세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으로 향한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큐브형 책장으로 가득한 도서관의 초현실적인 풍경에 압도되고 말았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박물관 이름은 멕시코의 정치가이자 교육자, 철학자, 작가로 멕시코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호세 바스콘셀로스 이름을 따라 지었다.



↖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호세 바스콘셀로스 도서관.



↖ 웅장한 외관의 해의 피라미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걸어서 아즈텍 문명 속으로, 테오티우아칸

멕시코시티에서 북동쪽 약 50km 떨어진 해발 2,300m 고원에 '신들의 고향'이란 뜻의 고대 도시 테오티우아칸이 있다. 기원전 200년부터 문명을 꽃피운 테오티우아칸에 들어서자, 탁 트인 벌판 위에 솟아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의 신비로운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길이 3km에 달하는 '망자의 길'이 고대 도시를 가로지른다. 이 길을 통해 신전과 광장, 달의 피라미드, 해의 피라미드, 케찰코아틀 신전을 둘러볼 수 있다. 그 중 '해의 피라미드'는 한 번의 길이가 무려 230m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피라미드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왕가의 무덤이라면 멕시코 피라미드는 인신 공양을 올리는 신전 역할을 했다. 뜨거운 피약별 고대 도시를 걸으니 '이토록 건조한 자연환경이 고대인들이 비를 상징하는 뱀을 만들게 하고,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가며 비를 기원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스친다.

바람과 모래의 땅, 소노라와 치와와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소노라의 거대한 사막에 숨겨놓은 비경을 만날 수도 있다. 척박한 황무지처럼 보여도 다양한 종의 선인장과 동식물이 살고 있다. 특히 '사막의 제왕'이라 불리는 사와로 선인장은 서부 영화 속 그대로다. 소노라는 사막뿐만 아니라 토착 문화,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길게 뻗은 해안선들로 가득하다.

멕시코 소노라 사막의 탁 트인 풍경.



렌터카를 빌려 리오 소노라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겨보자. 이 길은 주도인 에르모시요에서 북쪽으로 이어져 있으며 소박한 농장과 목장, 시골 경치가 옛 멕시코의 정취를 선사한다.

멕시코에서도 가장 건조한 지역은 북부 해발 1,430m에 자리한 도시 치와와다. 치와와는 원주민어로 '건조한 땅'을 뜻하며, 견종 치와와의 고향이다. 치와와에선 '엘 체페' 열차를 타고 구리 협곡인 '코퍼 캐니언(Copper Canyon)'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협곡의 벽이 구리빛을 띠어 구리 협곡이라 불리는 이 협곡은 면적이 65,000㎡로 미국의 그랜드캐니언보다 큰 거대 협곡이다. 약 4,000만 년 전 일어난 화산활동으로 화산재가 쌓여 협곡을 이루었다.

투명한 바다와 푸른 세노테의 향연, 칸쿤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파란 바다는 칸쿤의 첫인상. 긴 비행으로 노곤해진 몸에 갑자기 기운이 솟는다. 공항을 빠져나와 화려한 리조트가 즐비한 칸쿤 호텔 존으로 향한다. 칸쿤 호텔 존은 숫자 7모양 길고 얇은 지형의 섬으로 7의 안쪽은 라군, 바깥쪽은 카리브해를 품은 긴 백사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푸른 바다와 수영장, 멕시코부터 아시안, 프렌치까지 끝도 없이 펼쳐지는 미식의 향연까지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안은 그야말로 지상낙원이다. 리조트 밖에는 천연 동굴 신비로운 세노테(Cenote)가 지천이다. '세노테'는 석회암 암반이 함몰된 일종의 싱크홀



ㄱ 코퍼 캐니언이라는 이름은 협곡 주위에서 자라는 구릿빛 이끼에서 비롯되었다.

ㄷ 투명한 물과 늘어진 뿌리가 아름다운 세노테.



로 그 기원이 마지막 빙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빙하기 동안 해수면이 낮아지며 바다에 잠겨 있던 유카탄반도 석회암 지대가 드러났고, 석회암 토양에는 지하수에 빗물이 모여 천연 동굴 세노테가 형성됐다. 고대 마야인들은 세노테를 소중한 수원지이자 불가사의한 성지로 여겼고, 지금 세노테는 여행자의 스노클링 성지가 됐다.

동굴 하면 어둡고 축축한 지하, 종유석만 떠올렸는데, 세노테 앞에서 그 편견은 산산이 부서졌다. 와. 세상에. 풍덩. 동굴 안 에메랄드빛 물을 본 순간 탄성을 지르며 뛰어들고 말았다. 차갑긴 해도 이토록 맑고 깊은 물이 흐르다니. 물속에서 두리번대는 내 앞으로 꼬마 거북이 두 마리가 환영하듯 헤엄치며 다가온다. 칸쿤의 신비로운 자연 속에서 맞이하는 행복한 순간이다.

대자연과 첨단 기술의 만남, 포레스트 시티

이탈리아 건축가 스테파노 아르키텍티가 디자인한 포레스트 시티 마스터 플랜을 보면 칸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스테파노 아르키텍티는 칸쿤의 열대 우림 속에 자연을 보호하고 빈곤을 종식시키는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 클러스터를 고안했다. 태양열 패널로 도시를 둘러싸고 수로를 해상 파이프와 연결해 관개 농업을 활성화하며 557헥타르의 부지에 7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11만 6,00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포레스트 시티가 완공될 경우 13만 명의 사람들이 식물로 덮인 집에 살며, 자연과 도시가 얽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역할을 하는 도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마스터 플랜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하지만, 미래 도시를 향한 원대한 계획과 노력이 있기에 저탄소 스마트 시티를 위한 기술이 진보하는 것이 아닐까.



- 1. 95MW 규모의 호루스(Horus) 태양광 발전소
- 2. 100MW 규모의 타스티오타(Tastiota) 태양광 발전소
- 3. 99MW 규모의 엘 마요(EI Mayo) 태양광 발전소
- 4. 433MW 규모의 노르데II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멕시코는 연평균 일조량 6.36kWh/m²,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국가다. 한전은 지난 2019년 멕시코시티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착공했다. 한전과 스포르토코리아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캐나다 솔라사와 소노라주를 포함한 멕시코 세 지역에 29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 뒤 35년간 운영하며, 전력을 생산한다. 멕시코 태양광 발전소는 한전이 중남미에서 추진하는 첫 태양광 사업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이다. 2023년 2월 95MW 규모의 호루스(Horus) 발전소를 시작으로 2023년 11월 멕시코 소노라주(州)는 연내 100MW 규모의 타스티오타(Tastiota) 태양광 발전소와 99MW 규모의 엘 마요(EI Mayo) 태양광 발전소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한전은 태양광 발전소 가동으로 멕시코에서 주요 민자발전사업자(IPP) 지위를 확보했다. 또한 한전은 멕시코 북부 치와와 주 엘 엔시노에 2013년 433MW 규모 노르데II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준공해 상업운전 중이다. 이는 한국 최초의 중남미 진출 민자발전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MEXICO IN SOLAR BELT

FOREST CITY

400^{ha} 7,500,000^{plants}

도시 면적 557헥타르(약 168만 평) 중 400헥타르(약 120만 평) 녹지 공간 조성 예정

260,000그루의 나무를 포함한 약 7,500,000개의 식물

5,800' 28~30°C

주민 1인당 나무 2그루의 비율, 연간 5,800톤의 CO2 비축, 116,000톤 이산화탄소 흡수

특정 냉각 시스템을 이용해 28~30°C 정도로 적정 온도 유지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과 함께 세계 여론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뉴욕타임스는 2023년 4분기 유료 디지털 독자를 30만 명 모집했고 디지털 구독 연간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1조 3,330억 원)를 넘어섰다. 저무는 종이신문의 시대,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미디어 기업으로 탈바꿈한 뉴욕타임스의 이야기를 알아보자.

저무는 종이신문의 시대,



위기의 뉴욕타임스가

디지털 미디어 기업으로 환골탈태한 비결

The
New York
Times

C H A N G E N . O . W .

'회색 머리의 노부인(Gray Old Lady)'으로 불리던 미국 대표 신문, 뉴욕타임스. 지면 대부분을 사진 없이 글자로만 가득 채운 모습이 고루해 보여 이런 별명이 붙었다. 인터넷이 등장한 후에도 뉴욕타임스는 종이신문만 고집했다. 하지만 종이신문을 읽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고, 뉴욕타임스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도 인터넷 세상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여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뉴욕타임스는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생존을 위해 몸집 줄이기에 나선 뉴욕타임스는 전 직원의 급여를 5% 삭감하고, 2013년까지 TV 방송사 등 갖고 있던 대부분의 계열사를 매각했다.

* 2014년 배포된 '뉴욕타임스 혁신 보고서' 표지

2012년, 뉴욕타임스의 구원투수로 부임한 CEO 마크 톰슨(Mark Thompson)은 위기 극복의 돌파구로 '디지털 퍼스트'를 제시했다. 디지털 퍼스트란 기존의 종이신문 중심 뉴스 제작 방식을 모바일, 웹사이트, 종이신문 순으로 뒤집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종이신문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디지털 구독 상품을 생산·유통하고 광고와 구독 비즈니스를 포함해 전체 가치사슬을 운영하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디지털 상품을 팔고 있다. 십자말풀이 등 게임과 쿠킹, 오디오, 이 세 상품의 구독자는 2016년 24만 명에서 2021년 2분기 179만 명으로 급증했다. 100년 넘게 유지해 온 종이신문 DNA를 디지털 DNA로 바꾸는 데는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변화에 대한 저항은 줄이고, 변화를 향한 속도는 높은 뉴욕타임스의 비결은 한마디로 'Change N.O.W'다.

1

Naked truth,
현실을 직시하게 하라

변화의 첫걸음은 구성원들에게 위기 상황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불편한 진실도 드러내야 한다. 2011년 3월 온라인 기사 유료화에 승부수를 걸었던 뉴욕타임스는 2014년, 종이신문에 대한 자부심과 집착을 버리고 디지털을 우선으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혁신 보고서(Innovation Report)'를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96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디지털 퍼스트를 주창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문 중심적 제작 관행에 젖어 있다는 비판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2

Over-Communication,
지나칠 정도로 소통하라

위기와 변화의 시기에 리더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추측하게 된다. 추측은 오해나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당시 뉴욕타임스 구원투수로 부임한 CEO 마크 톰슨(現 CNN CEO)은 7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임원들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끝장 토론(intense conversation)을 벌였다. 구성원들과의 소통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소그룹으로 나눠 스무 번이 넘게 대화했다. 마크 톰슨은 "수많은 논쟁과 외침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정으로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3

Warning,
관성의 함정에 빠졌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모든 물체에 관성이 있듯 조직도 관성을 보인다. 조직의 관성을 끊어내려면 현재 가장 문제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에서 발생하는데, 뉴욕타임스 직원들은 여전히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직원들에게 짹 짹 메일을 보냈다. "일주일 동안 본사 건물의 모든 데스크톱에서 뉴욕타임스 웹사이트 접속을 전면 차단합니다. 그 어떤 업무보다 모바일을 최우선에 두고 일해주세요." 이 조치로 인해 뉴욕타임스 직원들은 모바일 서비스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고 한다.

“
시장의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직은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더 빨리'만 외치며 구성원을 몰아붙이면 오히려 '더 큰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 Naked Truth, Over-Communication, Warning의 Change N.O.W 원칙을 활용해 보자. 저항은 줄이고 속도는 높여 성공적인 조직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PANEL

임효진 대리
대구본부 기획관리실 전략경영부 직장인이 된 뒤로 웹툰을 자주 접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는 임효진 대리.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풍부한 경험으로 이어가 보고 싶었다는 그녀는, 'Talk'를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에 투영하며 이야기 읽기를 확장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전했다.

김성일 대리
대구본부 기획관리실 전략경영부 김성일 대리는 평소 코미디 장르의 생활툰을 즐겨보는 웹툰 마니아. "웹툰을 보면서 나의 취업 준비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며 그때의 간절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을 남겼다.

설혁진 대리
대구본부 기획관리실 전략경영부 평소 웹툰은 거의 보지 않는 편이라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았다는 설혁진 대리. 콘텐츠를 접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우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다는 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취준생, 직장인에게 <취준생물>을 추천했다.

윤상웅 대리
대구본부 기획관리실 전략경영부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라며 추억에 빠져 들어갔으며 웹툰에 푹 빠져 봤던 윤상웅 대리는 20여 년 전 중학생 시절부터 장르 불문, 웹툰 애독자라고 고백했다. 'Talk'를 통해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 공유가 재미있었고 신박한 경험이었다고 한다.

임효진
“신입 사원은 의욕이 앞서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니 자신의 한계를 알기도 어렵고요. 저 역시 그런 때가 있었어요. 현 대리가 ‘뚱뚱이’에 비유한 것이 찔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신입 생활에 가장 중요한 미덕이 아닐까 싶어요. 매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되, 모르는 일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배움을 구한다면 고달픈 신입 생활도 무사히 헤쳐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직장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내가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잘해야 해. 막 오버하고 날뛰고 센 불이 끊듯 살면, 금방 지치고 누군가 불을 끄려 하겠지. 흘러 넘치니까. - 35화



설혁진
“큰 실수를 저지른 주인공 김영환에게 현 대리가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는 장면에서 저의 신입 사원 시절이 생각났어요. 평소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는지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변 동료가 있다는 게 부러웠고, 저도 그런 동료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그냥 회사에 다니고 싶거든? 합격한 애들 보면 평범해 보이는 애들이 없다. 평범하지 않은 양을 공부해서 평범하지 않은 대학에 입학해, 평범하지 않은 학점과 스펙을 쌓고, 평범하지 않은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그래야 평범한 회사원이 된다. 평범하지 않은 게 평범해져 가는 것 같다. - 5화

김성일
“초반부 연이은 취업 실패로 자존감이 낮아진 주인공을 보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저의 취업 준비 시절이 떠올라 부끄러웠어요. 그 시절 저에게 ‘아직 취업 못 했냐? 언제 취업하냐?’ 등 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저도 스스로 작아졌거든요.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고 짠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력을 이길 수 있는 건 나만 한 경험뿐이다. -16화

임호진 “저는 작품 중에 주인공처럼 해외 경험이나 공모전 같은 특별한 스펙이 없어서 자소서 작성할 때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평범하고 성실하게 학교 다니고, 학내 동아리 활동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원하는 건 특별한 스펙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요. 주인공이 ‘경력을 이길 수 있는 건 나만 한 경험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요. 사소하더라도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주제별로 정리해서 활용했는데 자소서 합격률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전략이 나름대로 효과 있었던 거죠.(웃음) ”

**전화 먼저 받아야 되는 건가?
대리님이 빨리 오라고 하셨는데 어떡하지...
대리님! 제발 이 파일이 전화보다 중요한 거라 해주세요! -42화**



설혁진 “주인공이 업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걸려 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는 장면을 보니 저의 신입 사원 시절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업무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창구에 앉아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전화 받는 게 정말 두려웠거든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입사 초기엔 한동안 퇴근 후에도 지침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



**혼자서는 이렇게 많은 일 다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정리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신입이 첫날부터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54화**

김성일 “저도 신입 사원 때 알게 모르게 압박감이 많이 받긴 했어요. 첫 발령지가 울릉도였는데, 자진해서 간 것이 아니다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2명의 직원이 다섯 가지 업무를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 압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세대에게 전화 공포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전화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전화해야 할 때 심호흡 한 번 하거든요.(웃음) 하지만 저는 이런 압박감을 저를 성장시키는 양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달리기할 때도 숨이 멎을 것 같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오히려 호흡이 안정되면서 심폐지구력이 성장하는 것처럼요. 압박감이 있었기에 이것을 이겨내고 성장한 것이 아닐까요? ”

윤상웅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 요즘 취직이 어렵다는 말들이 뉴스에 종종 나왔습니다. 인생 첫 번째 이력서를 제출한 회사에서 서류 합격, 필기시험 합격, 1차 면접 합격 후 최종 면접만 남겨 둔 상황에서 탈락했던 경험이 있어요. 첫 번째 지원인데 너무 쉽게 최종 단계까지 도달해 자만했고, 처음 최종 면접을 보러 갔던 회사보다 더 작은 규모의 회사로는 눈길이 가지 않았죠. 하지만 그 후 많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한 번 올라가 본 맛이 내려갈 수 없게 만든다. -47화

**그래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사람한테 힘든 건
참을 수가 없다. -63화**



김성일 “지금 처한 주변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취업 준비를 할 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기 때문에 주인공은 더 좋은 환경 속에 스스로를 던진 것입니다. 취업에 실패했다고 매일 술만 같이 먹어주는 친구보다 함께 취업 준비를 하거나 자기계발에 힘쓰는 친구들과 어울리듯 나를 더 나은 환경으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주인공 김영환은 같이 일하던 선배의 괴롭힘으로 힘들어했지만 결국 퇴사를 결심하고 더 나은 곳에 취업하기로 하는 것처럼 말이죠. ”

윤상웅 “처음 직장생활을 경험하면 누구나 업무든, 인간관계든 힘든 시기가 한 번씩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능숙하지 못한 업무가 버거워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회사 내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찾아오는 경험도 하게 되고요. 그때마다 같은 경험을 공감하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는 옆에 있는 좋은 동료들이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좋은 동료야말로 회사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의 좋은 선배, 동료들과 함께한다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게 바뀌어 간다.
계절도 변해간다. 나에게도 변화가 오길 바란다. -29화**

화이트 해커의 세계

‘해커’라고 하면 여전히 어두운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 화이트 해커는 우리의 정보를 지켜주는 정보보안전문가에 가깝다. 우리가 잘 모르는 화이트 해커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자.

W H I T E H A C K E R

화이트 해커란?

‘화이트 해커가 뭐지?’라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화이트 해커에 대해 쉽게 정의하자면 정보보안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연출하는 해킹 관련 장면에서는 블랙 해커가 공격하면 화이트 해커는 공격을 방어하거나 블랙 해커를 추적하는 등 역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미화되곤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화이트 해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보통 모의해킹,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분석, 정보보안 컨설팅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친구 따라 해킹한다?

해킹 분야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중학교 시절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해킹과 관련된 책을 보는 순간부터였다. 책의 내용이 전부 기억나진 않지만 바이러스를 만드는 코드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 책을 접하고 나서는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해킹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친구와 같이 테스트해 보고 친구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해 보기도 하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 후 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 입학하여 운영체제, 암호학 등 여러 공부를 하며 정보보안의 꿈을 키워나갔다. 운이 좋게도 대학교 졸업 전에 정보보호 전문회사에 취업해 지금까지 정보보안인으로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에는 유독 관심이 없었다. 그동안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분야였고, 출전해도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회사에서의 업무에만 충실하던 중 2018년 우리 회사에 ‘보안취약점 점검 경력직’으로 입사하게 되어 안전보안처 정보보안전략실로 발령을 받았다. 그 당시 먼저 근무하고 있던 동료들이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에 같이 나가보면 어떨겠

느냐’라는 제안을 해주면서 본격적으로 경진대회 출전을 목표로 틈틈이 준비했다.

2019년 9월, 국가정보원에서 주최하는 사이버보안 콘테스트에 출전했다. 여기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으로 입상해 그 후로는 산업부나 국정원에서 주최하는 경진대회에 자주 출전했다. 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출전하면서 성적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 환경이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과 이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내게는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그리고 대회 중에도 동료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같이 출전했던 팀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고 싶다.

정보보안 = 불편한 것(X) → 꼭 필요한 것(O)

지금까지 화이트 해커와 내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유 퀴즈 박찬암 편’을 보면 화이트 해커의 세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정보보안이라고 하면 우리 한전인들 대부분 불편하고 귀찮게 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보보안은 꼭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노력할 것이다. 한전인 파이팅! 정보보안실 파이팅!

※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란?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는 가상 시나리오 및 시스템 내에서 블랙해커의 공격 흔적을 조사하여 공격자의 PC 주소를 찾거나 암호화된 파일의 내용을 풀어내는 등 제한 시간 안에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빠르게 맞추고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이트 해커 송재민 차장의 이력 살펴보기!

[정보보안업무 경력]

- 2011.02~2018.04 SK인포섹 : 국토교통부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 2018.05~2018.1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행정안전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점검
- 2018.12~현재 한국전력공사 정보보안실 :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등

[보유 자격]

- CISSP(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
- CISA(정보시스템 감사사)
- CPPG(개인정보관리사)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입상 이력]

- 국정원 | 2019년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콘테스트(제어 분야) 2위
- 산업부 | 2019년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정보 분야) 1위
- 국정원 | 2021년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콘테스트(제어 분야) 1위
- 산업부 | 2023년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제어 분야) 1위





치열한 독립의 역사를 잇는 천안지사의 일상

천안 독립기념관에 도열한 태극기를

비상하는 날개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손 같기도 한 겨레의 탑을 지나고, 수많은 태극기가 도열해 펼쳐지는 대로를 지나 겨레의 집에 다다른다. 겨레의 집에서 불굴의 한국인상을 마주한 뒤 1관부터 6관까지를 돌며 한반도에서 자행했던 일제의 야만적 강점의 역사와 이에 맞서 끊임없이 저항했던 우리 민족의 독립 역사를 한땀 한땀 새긴다.

야외전시실에는 조선총독부 철거부재전시공원이 있다. 식민통치의 본산이었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그 남은 부자재들을 이곳에 함부로 버려둔 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음울한데 통쾌한 공간이다.

독립기념관 외에도 유관순열사기념관, 이동녕 선생 기념관, 만세운동의 성지 아우내 장터 등 발길 닿는 곳마다 독립운동의 역사가 서려 있는 도시가 바로 천안이다.

2년 연속 무재해 기록을 달성한 천안지사

독립투사의 열이 깃든 천안에서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한전 천안지사는 교통의 요지이고 인구수와 사업체 수가 꾸준히 증가 추세라 업무량이 많은 사업소로 전사에서 손꼽히는 곳이다. 하지만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현장관리는 물론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현장의 설비를 수시로 진단하고 혁신적인 아이템을 활용해 재해를 미리 막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2년 연속 무재해라는 기록을 달성해냈다.

그뿐인가. 공기업 고객만족도에서 본부 내 1위에 등극했으며, 본부 내 최대 실적으로 EERS 강조 기간 우수사업소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고장이 빈번한 설비 현장을 발로 뛰며 유형별 선제적 예방 활동을 펼쳐 일시 정전이 전년 대비 27%나 감소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치열하고 부지런하게 달리며 알토란 같은 성과를 내는 이들의 일상이 독립운동의 넋이 서린 천안이라는 공간에 조화롭게 겹친다.

삼일절 즈음에 천안을 찾았다. 독립을 향한 염원을 간직한 채 내디뎠던 선열들의 발자국이 선명한 천안. 독립기념관을 비롯해 삼일절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아우내 장터, 유관순 열사의 생가, 독립운동의 큰 별, 이동녕 선생의 생가 등 독립운동 성지들이 곳곳에 자리한 천안에서 불꽃처럼 분주한 일상을 사는 천안지사 사람들을 만났다.

독립의 역사가 한땀 한땀 새겨진 도시, 천안

삶이 누군가의 희생에 기대어 있다는 걸 문득 깨달을 때가 있다. 우리의 현재가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이들의 피와 땀에 빛을 지고 있다는 깨달음을 주는 공간.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불꽃처럼 살다 가신 독립투사들의 역사를 기념하는 천안독립기념관이 바로 그곳이다.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천안지사 배전운영실 사우들.



천안지사 사옥 앞에 선 천안지사 사우들.



전북본부



우리 본부는 설명절을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찾았다. 남부시장 등을 방문해 한전의 전력공급 설비뿐만 아니라 고객 설비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위험 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신속한 보수와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전북본부 #전통시장 #남부시장 #안전적_전력공급 #안전점검 #화재예방 #안전한_설명절

원주지사



우리 지사는 2024년도 한전&전문회사 안전보건협의회 회의를 시행했다. 더불어 안전상생협력협약을 시행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올 한해 무재해 달성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원주지사 #안전보건협의회 #안전상생협력협약 #무재해_달성을_위해 #안전제일

#人STARGRAM #

이 코너는 KEP-C과 KEPCO-EP사업소 소식에서 발췌하여 꾸며집니다. 시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리지사



우리 지사는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관내 보호유공자 가구를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을 전달했다. 나누는 기쁨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고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

#구리지사 #보호유공자 #온누리상품권 #나누는_기쁨 #모두가_행복한_명절

포천지사



우리 지사는 어르신 100가구에 설 명절 음식 키트를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했다. 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을 녹이는 떡국과 누룽지가 담긴 따뜻한 키트를 준비했다. 손쉽게 음식을 준비할 수 있어 명절에도 든든한 끼니를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포천지사 #떡국 #누룽지 #든든한_한끼 #따뜻한_시작 #푸른_용의_기운 #새해_복_많이_받으세요

함안전력지사



우리 지사는 설명절을 맞아 '同心' 봉사활동을 시행해 지역아동센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물품을 기부했다.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는데, 명절이라 더욱더 느껴질 수 있는 적절함을 덜어드리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이다.

#함안전력지사 #同心 #마음을_나누요 #이웃사랑 #다정한_말벗 #말동무

남전주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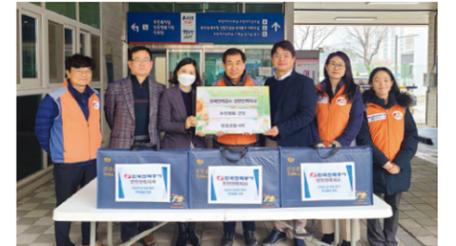
우리 지사는 설날을 맞아 독거 어르신 40분께 설음식 키트를 선물했다. 키트는 떡국떡, 곶감, 한과, 과일 등으로 구성했다. 우리의 선물로 어르신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나눔을 고민하고 실천할 예정이다.

#남전주지사 #사랑의_마음택배 #설_음식_키트 #떡국 #곶감 #한과 #과일 #달콤한_선물



원고·사진 보내실 곳 eunseonyang@kepcco.co.kr
문의 061-345-3128

천안전력지사



우리 지사는 설 명절을 맞아 청룡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생필품 세트를 선물했다. 일상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이 채워졌을 때 느껴지는 든든한 기분을 선물하고 싶었다. 본격적인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설명절! 행복하게 맞이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천안전력지사 #청룡동 #생필품_선물 #따뜻한_명절 #사회공헌활동 #값진_한_해

경북본부



우리 본부는 양산교육원과 배전전기원 수목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수목전지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2026년까지 모든 배전전기원이 해당 교육 이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을 기대한다.

#경북본부 #양산교육원 #교육협력MOU #배전전기원_수목전지_전문가_양성 #안전사고_예방

KEPCO NEWS

2024. 03



2023년 4.6조 영업손실 기록, 2024년 경영정상화에 총력

한전은 2023년 결산 결과, 매출액은 88조 2,051억 원, 영업비용은 92조 7,742억 원으로 영업손실 4조 5,691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영업손실이 28조 86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매출액은 요금 인상 등으로 16조 9,472억 원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연료비, 전력 구입비 감소 등으로 11조 1,388억 원 감소한 데 기인한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판매량은 0.4% 감소했으나 요금 인상으로 판매 단가가 26.8% 상승해 전기 판매 수익은 16조 7,558억 원 증가했다. 자회사 연료비는 7조 6,907억 원 감소했고,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도 3조 6,806억 원 감소했다. 기타 영업비용은 발전 및 송배전설비 신규 자산 증가에 따라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2,325억 원 증가했다.

지난 2023년 세 차례의 요금 인상과 연료 가격 하락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2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발생했으며, 국제유가 등 연료 가격 안정화 추세에 따라 경영환경은 나아지고 있다. 또한, 비핵심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과 더불어, 자회사 중간배당을 통해 사채발행한도 위기를 돌파하고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시행

한전은 2월 1일부터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배전설비의 연계 가능 용량이 부족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 부담하게 된다.

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2024년 10월 31일까지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home.kepco.co.kr > 열린경영 > 내부규정) 및 한전ON(online.kepco.co.kr > 제도약관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창업기업 모집

한전이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2024년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친환경 에너지 분야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요구되는 초격차 10대 분야를 지정,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선발해 창업자금과 R&D, 기술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초격차 10대 분야의 스타트업 217개사를 선발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3년간 약 2,387억 원의 사업화 및 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야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을 통해 원천기술의 확보와 기술개발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경우, 일반공모(16개사)와 민간 및 부처추천(14개사) 등을 통해 업력 10년 이내의 스타트업 30개사를 선발한다.

한전은 R&D 인프라 및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 고도화와 창업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선발된 기업은 정부로부터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화 자금 및 5억 원의 R&D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초격차 10대 분야: ①시스템반도체 ②바이오-헬스 ③미래 모빌리티 ④친환경 에너지 ⑤로봇 ⑥AI-빅데이터 ⑦사이버보안-네트워크 ⑧우주항공-해양 ⑨차세대원전 ⑩양자기술



한전-정부, 전력산업 산재예방 결의대회

한전과 고용노동부는 2월 7일 서울 한전경인건설본부 종합상황실에서 15개 전력그룹사 및 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전기기술인협회 안전보건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력산업 산재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력산업의 주요 주체인 전력그룹사와 협력사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중대재해 감축 정책에 부응해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 전력산업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영세한 전기공사업체의 산재예방 지원방안을 포함한 2024년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안전문화 정착 방안 모색에 이어 전력그룹사 및 협력사들은 ‘산재예방 결의문’에 서명하며 산재예방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전 이준호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폐회에 앞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라 약 2만 개 이상의 전기공사업체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해당 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혁신대토론회 개최

한전은 2월 7일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전력망 건설 및 운영을 책임지는 전력계통본부 전 사업소장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 고속도로 건설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의 이행력 제고와 함께,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토대로,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토론회에서는 건설, 운영, 송전 분야로 나누어 현안과 주요 리스크를 분석하고, 현장의 문제 상황에 대한 경험과 해결 방안을 공유했으며, 실행 가능한 혁신적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발전력을 적기에 송전망에 연결하기 위해 예측 기반으로 설비계획방식을 전환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국가 핵심사업은 정부정책 발표 즉시 전력공급 방안을 수립해 조기 건설에 착수하며, 적기 건설을 위해 단위공정별 사업관리, 핵심사업 이행성과 평가체계 마련 등 전력망 확충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영진 주도로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형정전 방지를 위해 예방진단기술과 같은 과학적 설비 진단기술을 전면 도입해 고장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혁신안을 도출했다.

설명절 연휴 안정적 전력공급 비상 근무 시행

한전은 설 연휴 동안 정전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설비점검을 시행하고, 비상 근무를 펼쳤다.

지난 11월부터 전국의 다중이용 시설 및 전통시장 전력공급 설비에 대해 열화상 진단 등 사전 점검을 통한 설비보강을 완료했고, 대규모 아파트 정전 시 신속 복구를 위한 지원체계를 점검했다. 대형 정전고장 예방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등 과학화 장비를 이용해 주요 전력공급 설비인 변압기 및 개폐장치의 이상 여부를 진단하고 조치를 완료했으며, 화재에 대비해 한국소방안전원과 합동으로 지하 복합발전소 64개소 및 케이블 37회선 등을 집중점검 했다. 한전은 설 연휴 기간의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비상 근무를 시행했으며, 예상치 못한 고장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 등도 확보했다.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설비 복구를 위해 한전은 매일 1,725명을 투입하고 협력회사 923개사와 함께 비상 동원 태세를 유지해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아파트 등 고객의 전기설비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비상발전기 준비 등으로 ‘24시간 긴급 지원’을 펼쳤다.



01 퍼즐 맞추기 quiz



마지막 한 조각을 맞춰 주세요!
Hint. 22~25쪽 'SITE'를 참고하세요.

☕ 퀴즈 및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① 번



② 번



③ 번



④ 번



02 퀴즈 당첨자 및 설문조사 참여자

- | | |
|-----------|-----------|
| 안*환(2040) | 이*홍(3582) |
| 조*빈(6300) | 서*지(1511) |
| 장*라(2266) | 최*국(1896) |
| 예*준(1533) | 김*하(3620) |
| 최*주(9080) | 신*훈(5132) |
| 최*미(1909) | 이*경(6332) |
| 박*민(9887) | 김*원(5866) |
| 윤*호(4370) | 김*영(0765) |
| 김*택(9663) | 손*주(2474) |
| 배*을(0404) | 김*길(0320) |
| 서*권(7139) | 장*복(8571) |
| 한*기(9032) | 정*덕(2880) |
| 김*준(5957) | 정*희(4726) |
| 장*만(5590) | 김*경(3437) |
| 김*수(1341) | 윤*화(6795) |

03 지난호 정답

① 번



당신의 봄은
어디쯤
와 있나요

겨울이었다. 스물여섯, 여행 가방 하나 들고 홀로 도쿄로 이민을 갔던 날도, 도쿄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 잘 살다가 훌쩍 프랑스로 떠나던 날도, 그리고 이방인으로 살아온 12년의 삶을 뒤로 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던 날도 모두 코끝 시린 겨울이었다. 새해를 맞이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한 해를 보내야 할지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던 것일지도, 혹은 그저 대담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따뜻한 봄이 오기 전, 나는 늘 새로운 변화를 도모했다. 내게 봄은 새로운 곳에서의 새출발을 의미했다. 긴 터널 같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거라는 사실에 내심 설레었으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버릴 만했다. 그래서 봄을 더욱 기다렸던 것은 아닐까.

파리의 겨울은 유독 해가 없는, 흐린 날이 이어진다. 오죽하면 파리지역들도 비타민 D를 챙겨 먹고 주기적으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따뜻한 옆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 파리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추운 겨울에도 해가 쨍하게 뜨는 날이면 잔디밭에 누워 광합성을 하는 그들의 문화를 심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날씨의 영향을 받아 예술가의 도시가 되었을까 싶기도 했다. 그 겨울, 일기만 쓰던 나는 글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글은 차곡차곡 쌓여 '봄'이라는 계절에 책으로 엮어졌다. 봄은 나에게 더욱 특별한 계절이 되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계절, 그 계절에 피는 꽃을 유난히 좋아한다. 또한 봄은 한 해의 시작점에 있으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기에 충분하고 최선을 다해 달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라 여유가 있어 좋다.

최근 나의 찬란했던 20대와 30대가 녹

아 있는 <나는 파리의 플로리스트>를 다시 읽었다. '나는 파리의 플로리스트'라 적어 놓고 파리의 낭만은 이야기하지 않는 책, 꽃내음이 날 것 같은 표지지만 파리의 이면을, 이방인의 삶을 적나라하게 나열한 책.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도시이자 한 번만 가지 않는다는 유럽의 보석, 파리에서 공부와 취업을 하며 이방인에서 이민자로 자리를 잡아 가는 이야기들은 다른 이의 일기를 훑쳐보는 것만 같아 괜히 마음을 좋게 했다. "행복도 기술이라는 말이 있다. 나의 행복을 잘 아는 것만큼 좋은 기술은 없다." (<나는 파리의 플로리스트> 중) 나는 소위 낭만의 도시라 불리는 파리에

살며 '스스로 언제, 어떻게 행복한지'에 대해 집중했다. 그 덕에 그 도시를 떠나면 없어질 것만 같은 낭만이 결국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겨울에도 봄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비로소 봄이 와도 그 따스함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내 행복을 알 기술이 없다면 그 계절은 계속 겨울이지 않을까. 최선을 다했던 시간을 '봄'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으로 살아온 12년은 모두 봄이었다. 힘들었던 순간은 추억이 되었고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들은 나를 미소 짓게 한다. 이것은 앞으로도 내게 '인생의 봄'이라고 불릴 시간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신의 봄은 어디쯤 와 있나요?